

Session 7 The 70-Weeks Prophecy of Daniel 9:24-27 (Part 1)

7 과 다니엘서 9:24-27 절의 70 이레 예언 (파트 1)

I. OUTLINE OF DANIEL 9:1-27

다니엘 9:1-27 절 개관

A. Daniel's intercessory prayer (Dan. 9:1-19)

다니엘의 중보기도 (단 9:1-19)

1. The setting of the vision (9:1-2)

환상의 배경 (9:1-2)

2. Daniel set his heart to seek God (9:3)

다니엘이 하나님을 구하기로 마음을 정함 (9:3)

3. Daniel's intercessory prayer (9:4-19)

다니엘의 중보 기도 (9:4-19)

B. Gabriel visited Daniel (9:20-23)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방문하다 (9:20-23)

C. The 70-weeks Prophecy (9:24-27)

70 이레 예언 (9:24-27)

1. Israel's salvation and restoration: six glorious promises (9:24)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6 개의 영광스런 약속들 (9:24)

2. Events *during* the 69 weeks (9:25): Messiah came after Jerusalem was restored

69 이레 **동안**의 일들 (9:25):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후에 메시아가 오심

3. Events *after* the 69 weeks (9:26): Messiah was killed and Jerusalem was destroyed

69 이레 **이후**의 일들 (9:26):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시고 예루살렘이 파괴됨

4. Events *during* the 70th week (9:27): the Antichrist, his covenant, and the Great Tribulation

70 번째 이레 **동안**의 일들 (9:27): 적그리스도, 그의 언약, 그리고 대 환란

II. INTRODUCTION

도입

- A. The third vision in the book of Daniel is recorded in Daniel 9:24-27. Daniel received this vision in the first year of Darius the Mede, in 538 BC. Darius ruled the province of Chaldea, i.e., Babylon. This was 67 years after Daniel was taken to Babylon in 605 BC. If he was a teen when he arrived in Babylon, then he would have been in his 80s at the time of this vision.

다니엘서의 세 번째 환상은 다니엘서 9:24-27 절에 기록되어 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주전 538 년 메데의 다리오 왕 첫 해에 받았다. 다리오는 갈대아 지역, 즉 바벨론 지방을 다스렸다. 이는 다니엘이 주전 605 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67 년이 지난 이후였다. 만일 그가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가

10 대였다면, 이 환상을 받았을 때 그는 80 대 정도였을 것이다.

¹*In the first year of Darius [538 BC] the son of Ahasuerus, of the lineage of the Medes, who was made king over the realm of the Chaldeans [Babylon]... (Dan. 9:1)*

¹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바벨론]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BC 538] (단 9:1)

- B. Daniel had been studying Jeremiah's prophecy that Jerusalem would be desolate for 70 years, then later restored (Jer. 25:11-12; 29:10-14; 36:23, 28). It was 538 BC, thus he understood that there were only two more years before the 70 years of captivity (606-536 BC) were complete.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70 년간 황폐한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연구하고 있었다 (렘 25:11-12; 29:10-14; 36:23, 28). 이 때는 주전 538 년이었고, 따라서 그는 70 년의 포로기 (주전 606-536) 가 다 차기까지 이제 겨우 2 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²*In the first year of his [Darius'] reign I, Daniel, understood by the books the number of the years specified by the word of the LORD through Jeremiah the prophet, that He would accomplish seventy years in the desolations of Jerusalem. ³Then I set my face toward the Lord God to make request by prayer and supplications, with fasting... (Dan. 9:2-3)*

² 곧 그 [다리오]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³ 내가 금식하며 배움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단 9:2-3)

1. **70 years:** As this 70-year period was ending, Daniel prayed for Israel's restoration. God had promised Jeremiah that He would deliver Israel if they cried out for it (Jer. 29:10-14).

70 년: 이 70 년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기에,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다 (렘 29:10-14).

¹⁰*After seventy years are completed at Babylon, I will visit you and perform My good word toward you, and cause you to return to this place [Jerusalem]...¹²You will call upon Me and go and pray to Me...¹³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arch for Me with all your heart...¹⁴I will bring you back from captivity... (Jer. 29:10-14)*

¹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 ¹²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 ¹³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¹⁴ ...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 (렘 29:10-14)

2. **Prayer:** Daniel prayed with fasting for the release of God's purposes. Daniel 9:3-19 is the prototype of intercession for Israel. It involves deep mourning over Jerusalem's sin and condition (spiritually and politically, etc.). We see his prayer (9:4-19) and God's response (9:20-23). Daniel knew Isaiah's prophecy about Cyrus, who would help restore Jerusalem (Isa. 44:28; 45:1-7). Cyrus, the king of Persia, had just conquered Babylon in 539 BC.

기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목적들이 풀어질 것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서 9:3-19절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의 원형이다. 이는 예루살렘의 죄와 그 상황 (영적이며 정치적인 부분 등) 을 향한 깊은 애통함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그의 기도와 (9:4-19),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다 (9:20-23).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돕게 될 고레스(사 44:28; 45:1-7)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다. 바사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는 바로 전인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다.

III. GABRIEL: THE CALL TO SEEK UNDERSTANDING (DAN. 9:21-23)

가브리엘: 깨달음을 구하는 것에 대한 요청 (단 9:21-23)

- A. Gabriel appeared to Daniel twice (Dan. 8:16; 9:21). The “man Gabriel” indicates that he appeared in a human form. The evening offering was at 3pm, when devout Jews prayed (v. 21).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2 번 나타났다 (단 8:16; 9:21). “사람 가브리엘”이라는 것은 그가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났음을 말한다. 독실한 유대인이 저녁에 기도를 하는 시간은 오후 3 시였다 (21 절).

²¹While I was speaking in prayer...Gabriel...²²said, “O Daniel, I have now come forth to give you skill to understand.²³...consider the matter, and understand the vision.” (Dan. 9:21-23)

²¹ 곧 내가 기도할 때에 ... ²²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²³ ... 그러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단 9:21-23)

- B. **Consider:** Gabriel urged Daniel to diligently seek to understand the vision (9:23, 25). The need to seek understanding was emphasized in each of Daniel’s four visions (7:16, 19; 8:15, 17; 9:3, 22-23, 25; 10:3, 11-14; 11:33, 35; 12:4, 8-10). Gabriel spoke in such a way that God’s plan would be clear only to those who were hungry to understand it, not to the wicked (12:10).

생각하고: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이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구할 것을 촉구했다 (9:23, 25). 깨달음을 위해 구할 것에 대한 필요성은 다니엘의 각 4 개의 환상에서 강조되어 있다 (7:16, 19; 8:15, 17; 9:3, 22-23, 25; 10:3, 11-14; 11:33, 35; 12:4, 8-10).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를 깨닫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만 명확하게 보여지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다 (12:10).

¹⁰“...and none of the wicked shall understand, but the wise shall understand.” (Dan. 12:10)

¹⁰ ...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단 12:10)

- C. In Daniel’s next vision, an angel told him that God would raise up people of understanding. 다니엘의 다음 환상에서, 한 천사는 하나님이 지혜로운 백성들을 일으키실것에 대해 말했다.

³³Those of the people who understand shall instruct many... (Dan. 11:33)

³³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 (단 11:33)

IV. THE CERTAIN TRIUMPH OF THE MESSIAH (DAN. 7:13-14)

메시아의 확실한 승리 (단 7:13-14)

- A. In Daniel’s first vision he saw the Messiah ruling the world in the Millennium (7:13-14). The certainty of the Messiah’s eternal triumph is the background of Daniel’s third vision (9:24-27). 다니엘의 첫째 환상에서, 그는 메시아가 천년왕국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았다 (7:13-14). 메시아의 영원한 승리의 확실성은 다니엘의 셋째 환상의 배경이 된다 (9:24-27).

¹³“Behold, One like the Son of Man [Jesus], coming with the clouds of heaven! ... ¹⁴Then to Him was given dominion and glory and a kingdom, that all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should serve Him. His dominion is an everlasting dominion...” (Dan. 7:13-14)

¹³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예수님]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 ¹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 (단 7:13-14)

- B. The Millennium is a 1,000-year period in which Jesus will rule this world in righteousness. At that time the kingdom will be openly manifest worldwide, affecting every sphere of life (Rev. 20:1-6; Isa. 2:1-4; 9:6-9; 11:1-16; 51:1-8; 60-62; 65:17-25; Mt. 19:28; Acts 1:6; 3:21).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실 1,000 년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적으로 공공연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계 20:1-6; 사 2:1-4; 9:6-9; 11:1-16; 51:1-8; 60-62; 65:17-25; 마 19:28; 행 1:6; 3:21).

“They shall be priests of God...and shall reign with Him a thousand years. (Rev. 20:6)

⁶ ...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계 20:6)

V. GOD’S SOVEREIGN 70-WEEK PLAN: 490 YEARS

하나님의 주권적인 70 이레 계획: 490 년

- A. God determined that it would take “70 weeks” (490 years) to prepare Israel for world leadership.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인 리더십으로 준비되기까지 ”70 이레” (490 년) 가 걸리게 될 것을 정하셨다.

²⁴“Seventy weeks are determined for your people and for your holy city [Jerusalem]...” (Dan. 9:24)

²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예루살렘]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 (단 9:24)

- B. **70 weeks:** A week in ancient Israel was a period of seven days or seven years. Most agree that a week here refers to a “week of years” (seven years) not a “week of days” (seven days). Thus, 70 weeks, or “70 units of 7 years,” totals 490 years. Most scholars agree that a week in this passage refers to seven years, since interpreting it as days does not have any historical application.

70 이레: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레는 7 일 혹은 7 년의 기간을 말했다. 대부분은 여기서의 이레가 “날의 이레” (7 일)이 아닌 “년의 이레” (7 년)을 말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따라서 70 이레, 혹은 “70 개의 7 년” 은 총 490 년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구절의 이레가 7 년을 의미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이것을 날로 해석하면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 C. **Your people and holy city:** Gabriel’s focus was on Jerusalem. His words answered Daniel’s prayer for ethnic Israel and Jerusalem (9:4-19). God’s end-time purpose is “Jerusalem-centric.” One view is that the “prophetic calendar” of the 490 years only goes forward when Israel is in the promised land, living in a restored Jerusalem (as her capital), with a functioning temple.

네 백성과 거룩한 성: 가브리엘의 초점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의 말들은 다니엘의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9:4-19).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목적은 “예루살렘 중심” 이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성전이 재 기능을 하는 회복된 예루살렘에 (이곳을 수도로) 살 때에만 이 490 년의 “예언적인 달력” 의 시간이 진행된다고 본다.

VI. GABRIEL DECLARED SIX PROMISES (DAN. 9:24)

가브리엘은 6 가지 약속들을 선포했다 (단 9:24)

- A. Gabriel revealed that 70 weeks, or 490 years, were determined by God to prepare Israel to receive salvation and to walk in her leadership calling over the nations (Isa. 2:2-4). He emphasized six promises, which are based on Jesus’ atoning work on the cross. They are partially experienced by God’s people now, and will be fully manifest when Jesus returns.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열방에 대한 리더십으로의 부르심 (사 2:2-4)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될 때까지 70 이레, 즉 490 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셨음을 밝혔다. 그는 6 가지 약속을 강조했다는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에 기반한 것들이었다. 이 부분들은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²⁴“Seventy weeks [490 years] are determined for your people [Israel] and for your holy city [Jerusalem], to finish the transgression, to make an end of sins, to make reconciliation for iniquity, to bring in everlasting righteousness, to seal up vision and prophecy, and to anoint the Most Holy.” (Dan. 9:24)

²⁴ 네 백성 [이스라엘]과 네 거룩한 성[예루살렘]을 위하여 일흔 이레 [490 년]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단 9:24)

- B. To finish the transgression: Israel’s national rebellion against God will come to an end. The Hebrew word *transgression* has a definite article here, “the,” implying that it refers to a specific transgression—i.e., Israel’s rebellion against God in rejecting Jesus. Surely, all Israel will be saved (Isa. 45:17, 25; Rom. 11:26).

허물이 그치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반역은 끝나게 될 것이다. 허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여기서 정관사 ‘the’ 를 가지고 있고, 이는 특정한 허물, 즉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분명히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사 45:17, 25; 롬 11:26).

²⁶“So all Israel will be saved, as it is written: “The Deliverer [Jesus] will come out of Zion...” (Rom. 11:26)

²⁶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예수님]가 시온에서 오사 ... (롬 11:26)

- C. To make an end of sins: Sins in the plural speaks of one’s individual sins in everyday life. Israel will be the first nation in which every person will live holy (Isa. 60:21; Zech. 14:20-21).

죄가 끝나며(한글 KJV: 죄들을 종결시키며): 여기서 죄는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한글 KJV 참고), 이는 한 사람의 매일의 삶에서의 개인적인 죄들을 말한다. 이스라엘은 모든 이들이 거룩하게 사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사 60:21; 스 14:20-21).

²¹“Your people shall all be righteous; they shall inherit the land forever...” (Isa. 60:21)

²¹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 (사 60:21)

- D. To make reconciliation for iniquity: There will be no consequences for past sins that have been repented of—for individuals, family lines, or nations. In this age, a criminal may repent of his serious crimes, but he will be sent to prison. However, the negative “sow and reap” effect of sin will be finished, because Jesus paid the debt for national and individual sins (2 Cor. 5:17-21).

To “make reconciliation” is the Hebrew verb *kaphar*, meaning “to atone” or “to cover.” This includes cleansing the land of curses and demonic spirit, etc. (Zech. 13:2).

죄악이 용서되며(한글 KJV: 죄악에 화해를 이루고): 이전에 죄를 지었지만 회개한 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이든, 가계의 죄이건, 국가의 죄이건, 어떤 죄의 결과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현재의 시대에는 범죄자가 자신의 심각한 죄악을 회개할 수는 있지만 그는 감옥으로 보내질 것이다. 그러나 죄로 인한 부정적인 “심고 거두는” 결과는 끝나게 될 것인데, 이는 예수님이 국가적이고 개인적인 모든 죄 값을 다 치루셨기 때문이다 (고후 5:17-21).

“화해를 이룬다” 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인 카파르 (*kaphar*) 인데, 이는 “속죄하다” 또는 “덮다” 를 뜻한다. 이는 그 땅의 저주와 악한 영 등을 깨끗하게 함을 포함한다 (스 13:2).

²“It shall be in that day...I will also cause...the unclean spirit to depart from the land.” (Zech. 13:2)

²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스 13:2)

- E. To bring in everlasting righteousness: King Jesus will establish a new world order in which righteousness will be expressed in the people and all the social and governmental structures.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righteousness forever (Isa. 11:2-5; Jer. 23:5-6; 33:15-18).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왕이신 예수님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실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과 모든 사회, 정부 구조 가운데 의가 드러나게 것이다. 온 땅은 영원히 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사 11:2-5; 렘 23:5-6; 33:15-18).

¹³*We...look for new heavens and a new earth in which righteousness dwells. (2 Pet. 3:13)*

¹³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벧후 3:13)

⁵*“A King shall reign and prosper, and execute judgment and righteousness in the earth...” (Jer. 23:5)*

⁵ ...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렘 23:5)

¹³*“The remnant of Israel shall do no unrighteousness and speak no lies...” (Zeph. 3:13)*

¹³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 (슌 3:13)

F. **To seal up vision and prophecy:** To “seal up” prophetic visions means that God will bring the fulfillment of all the promises given in the visions. He will set His seal on all that He promised. He will release the complete fulfillment and understanding of every vision and promise. A sealed document was one that was *guaranteed*. Sealing a document involved closing it, but it also included *authenticating it legally* with one’s seal (i.e., signature). Also, prophetic revelation will be fully made known. Peter spoke of “the times of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Acts 3:21).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한글KJV: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예언적인 환상을 “봉인한다” 것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주신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심을 의미한다. 그분은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 위에 그분의 인을 치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환상과 약속에 대한 완전한 성취와 이해를 주실 것이다. 봉인된 문서는 이것이 보장된 것임을 말한다. 문서를 봉인하는 것은 이를 담은 후, 봉인 (즉, 싸인) 으로 법적으로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예언적인 계시는 완전히 알려지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 에 대해 말했다 (행 3:21).

1. The NKJV translates the Hebrew verb *hatom* as to “*seal up*” vision. It can be translated “*to seal, to ratify or to confirm*.” Most do not add the word *up* after *seal*, to avoid giving the idea of hiding the information rather than guaranteeing or authenticating it.

NKJV 는 이 히브리어 동사 하툼 (*hatom*) 을 환상을 “**봉인하다 (seal up)**” 로 번역했다. 이는 “**봉인(to seal), 또는 승인(to ratify), 확정하다(to confirm)**” 로 번역될 수 있다. 대부분은 **봉인하다 (seal)** 라는 단어 뒤에 “**up**” 을 쓰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정보를 숨기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2. The same verb, *hatom* (to seal), is used in Isaiah 8:16 of sealing the law or teaching. The king of Tyre is described as being the seal (*hatom*) of perfection (Ezek. 28:12). The use of the root of *hatom* has to do with a seal of approval on him. Six verbs in verse 24, “to finish,” “to make an end,” etc., each indicate the conclusion of a process.

동일한 동사인 하툼 (*hatom*, 봉인하다) 은 이사야 8:16 절에서 율법이나 가르침을 봉인하는데 쓰였다. 두로 왕은 완전한 인 (하툼) 이라고 묘사되었다 (겔 28:12). 하툼의 어근을 쓰는 것은 그가 승인하는 인침과 관계가 있다. 24 절의 6 개의 동사, “그치며,” “끝나며,” 등은 각각 어떤 과정의 결과를 말한다.

¹⁶*Bind up the testimony, seal the law among my disciples. (Isa. 8:16)*

¹⁶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합하라 (사 8:16)

G. **To anoint the Most Holy**: To anoint is to consecrate and empower for God’s service. The progression of God’s blessings in verse 24 reaches the ultimate here—in two applications.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별되거나 힘을 얻는 것을 말한다. 24 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진행은 여기서 궁극적인 부분에 다다른다- 이는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1. Jesus is the “anointed One”—the Hebrew word means “Messiah.” His anointed ministry will “branch out,” or be fully manifest in all the nations in the Millennium (Zech. 6:12).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분” 이다 - 이 히브리 단어는 “메시아” 를 뜻한다.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은 천년왕국에서 모든 열방 가운데 “돋어나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슥 6:12).

¹²“Behold, the Man whose name is the Branch! From His place He shall branch out, and He shall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Zech. 6:12)

¹²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어나서(한글 KJV: 자라)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슥 6:12)

2. The millennial temple: God’s anointing, or glory, will be manifest in the holy of holies in the new temple (Ezek. 43:6-7), and will “rest on” Jerusalem and fill the earth (Hab. 2:14).
 천년왕국 성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또는 영광은 새로운 성전의 지성소에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며 (겔 43:6-7), 예루살렘 위해 “임하며”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합 2:14).

⁵...behold,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emple... ⁷And He [Jesus] said to me...

“This is the place of My throne...where I will dwell in the midst of...Israel forever.” (Ezek. 43:5-7)

⁵ ... 내가 보니 여호와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⁶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 ⁷ ...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 (겔 43:5-7)

²...the LORD will arise over you [Jerusalem], and His glory will be seen on you.

³Gentiles [nations] shall come to your light... (Isa. 60:2-3)

² ... 오직 여호와께서 네[예루살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³ [이방] 나라들은 네 빛으로, ... (사 60:2-3)

¹⁴“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Hab. 2:14)

¹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합 2:14)

3. The phrase *the Most Holy* is *godes gada* in Hebrew (“holy of holies”), and (“holy”) is translated as “the sanctuary” in verse 26. The phrase *the most holy* is used over 40 times in Scripture to speak of the temple or the tabernacle.

지극히 거룩한이라는 문구는 히브리어로 **고데스 가다** (*godes gada*, 지성소)이며, **고데스** (*godes*, “거룩”) 는 26 절에서 “성소” 로 번역되었다. **지극히 거룩한** (the most holy) 이라는 문구는 성경에서 성전 혹은 성막을 말하기 위해 40 번 이상 사용되었다.

H. A remnant of individual Jewish believers has partially experienced these blessings. Israel as an entire nation will enter into the fullness of all six blessings when Jesus returns (Rom. 11:5, 25-27).

유대인 성도들의 남은 자들의 개개인은 이 축복들을 부분적으로 경험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이 모든 6 개의 축복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갈 것이다 (롬 11:5, 25-27).

⁵At this present time there is a remnant according to the election of grace...²⁵Blindness in part has happened to Israel until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has come...²⁶All Israel will be saved... (Rom. 11:5, 25-26)

⁵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 ²⁵ ...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²⁶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 (롬 11:5, 25-26)

VII. OVERVIEW OF DANIEL 9:24-27

다니엘 9:24-27 절 개관

A. Daniel 9:24-27 is the only passage in the Bible that presents Jesus' first and second comings and death along with the restoration of Jerusalem and the temple and their destruction once again. It also sets forth the temple at the time of the Tribulation and the abominations of the Antichrist, along with the resulting desolations and the final judgment on the Antichrist. It is the only place in the Bible that the whole story about the Messiah and the salvation of Israel is set forth.

다니엘서 9:24-27 절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죽음에 대해 말하되,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 그리고 이것들이 다시 파괴될 것과 함께 언급되는 유일한 구절이다. 이는 또한 대 환란과 적그리스도의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의 성전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황폐함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최종 심판을 함께 서술하고 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진술되어진 전체 스토리를 담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1. God's plan to restore Israel includes six great blessings released over 70 weeks (v. 24)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6 가지 위대한 축복들이 70 이레 동안에 부여되는 것을 포함한다 (24 절)
2. Jerusalem was restored, and Messiah came to Jerusalem (v. 25)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25 절)
3. Jerusalem was destroyed after Messiah was killed in Jerusalem (v. 26)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 (26 절)
4. The Antichrist will cause great desolations, and then he will be destroyed (v. 27)
적그리스도가 큰 황폐함을 가져오고, 이후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27 절)

B. God has established a storyline (v. 25-26) that His people can trust in the end times (v. 27).

하나님은 이야기의 흐름을 말씀하심으로 (25-26 절), 마지막 때에 자신의 백성들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셨다 (27 절).

1. Verse 25 describes events that occurred *before* the 69 weeks (483 years) were complete.
25 절은 69 이레 (483 년) 가 완성되기 **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한다.
2. Verse 26 describes events that occurred *after* the 69 weeks, or 62 plus 7 weeks. It focuses on events related to Jesus' first coming—Jesus was killed, and Jerusalem was destroyed.
26 절은 69 이레, 즉 62+7 이레가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한다. 이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예루살렘이 파괴당한 일)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Verse 27 describes events that will occur *during* the 70th week, the final 7 years of this age. It

focuses on events related to Jesus' second coming, the Antichrist, and the Great Tribulation. The Antichrist will cause desolation, and then he will be destroyed.

27 절은 70 번째 이레, 이 시대의 마지막 7 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한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과 적그리스도, 대환란과 관련된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적그리스도는 황폐케 할 것이며, 죽임을 당할 것이다.

- C. Messiah was to come only after Jerusalem was restored (9:25). Jerusalem was restored—including its streets and walls. This process began with a command to restore Jerusalem.

Verse 25 describes events that occurred *before* the 69 weeks (483 years) were complete.

메시야는 예루살렘이 회복된 이후에 오시게 된다 (9:25). 거리와 벽들을 포함하여 예루살렘은 회복되었다. 이 과정은 예루살렘을 회복 (중건) 하라는 명령에서 시작된다. 25 절은 69 이레(483 년)가 완성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한다.

²⁵“**Know therefore and understand, that from the going forth of the command to restore and build Jerusalem until Messiah the Prince [Jesus], there shall be seven weeks [49 years] and sixty-two weeks [434 years]; the street shall be built again, and the wall, even in troublesome times. (Dan. 9:25)**

²⁵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한글 KJV: 메시아] 곧 왕[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49 년]와 예순두 이레[434 년]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단 9:25)

- D. Gabriel described events occurring *after* the 69 weeks, or 62 plus 7 weeks, (9:26). Jesus was killed and Jerusalem was destroyed. Verse 26 focuses on events related to Jesus' first coming.

가브리엘은 69 이레, 즉 62+7 이레가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설명한다 (9:26).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었다. 26 절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계된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²⁶**After the sixty-two weeks Messiah shall be cut off [killed], but not for Himself; and the people of the prince who is to come [Antichrist] shall destroy the city and the sanctuary [temple]. The end of it shall be with a flood, and till the end of the war [70 AD] desolations are determined. (Dan. 9:26)**

²⁶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죽임을 당하며] 장차 한 왕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 [성전]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AD 70 년]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한글 KJV: 그 전쟁의 끝에는 [AD 70 년]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단 9:26)

- E. Gabriel described events occurring *during* the 70th week, the final 7 years of this age (9:27).

The Antichrist will cause desolation and then he will be destroyed. Verse 27 focuses on events related to Jesus' second coming, the Antichrist and his covenant, and the Great Tribulation.

가브리엘은 70 번째 이레, 이 시대의 마지막 7 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한다 (9:27).

적그리스도는 황폐케 할 것이며, 죽임을 당할 것이다. 27 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조약, 그리고 대환란과 관련된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²⁷**Then he [Antichrist] shall confirm a covenant with many for one week [7 years]; but in the middle of the week [3½ years] he shall bring an end to sacrifice and offering [in the temple]. And on the wing of abominations shall be one [Antichrist] who makes desolate, even until the consummation, which is determined, is poured out on the desolate [Antichrist]. (Dan. 9:27)**

²⁷ 그[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7 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3 년 반]에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적그리스도]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단 9:27)